

미국 소매판매: 8 월 소비 전방위 확대, 물가 압력 우려 커져

2026.09.1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8 월 미국 소매판매는 광범위한 명목 지출 확장을 확인했고, 인플레이 압력이 우위인 현재 국면에서 이는 긴축 유지 쪽 근거를 보강한다.

8 월 소매판매, 명목 수요 확장이 인플레이 우려를 다시 키운다

7 월 소매판매가 감소하면서 소비 흐름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8 월 발표는 이 우려를 상당 부분 되돌렸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 압력이 우위인 국면에 있고, 국제유가(WTI)가 고점권에 머물고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한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6% 반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소비가 실제로 얼마나 견조한지가 이번 지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였다.

결과는 뚜렷했다. 8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2%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다. 총매출 규모도 7,739 억 달러로 7 월은 물론 6 월 개정치까지 넘어섰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모두 제외해도 증가율은 똑같이 +1.2%였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4.7%에서 5.6%로 오히려 가속했다. 이는 이번 증가가 특정 품목의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소비 전반에 걸친 확장임을 뜻한다.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온라인 등 비점포 소매로 전월 대비 +2.6% 늘며 전월 부진을 완전히 회복했고, 3 개월 평균 전년 대비 증가율도 두 자릿수(+10.2%)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는 여전히 부진해 전월 대비 +0.6%에 그쳤고 전년 대비로도 전 품목 중 하위권인 +2.1%에 머물렀으며, 식품·음료도 전년 대비 +0.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로 휘발유 판매는 전년 대비 +21.0%로 크게 뛰었지만 이는 유가 상승이 연간 비교치를 부풀린 효과가 커서 이달 대 전월 증가율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이번 지표는 현재의 인플레이 우려 우위 국면에서 물가 축에는 악재 쪽에 가깝다. 소비 지출이 식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요가 둔화하며 물가 압력을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약화시키고, 통화당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성장 측면에서는 소비 급랭이나 경기 급속 둔화 우려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이번 수치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기준이라 실제 구매력 기준의 소비 증가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이는 다가올 물가 지표 발표에서 확인될 부분이다. 앞으로는 8 월 소비자물가와 개인소비지출물가가 이번 명목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지, 자동차 소비가 9 월에도 부진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9 월 28 일 예정된 통계 기준 개정이 최근 흐름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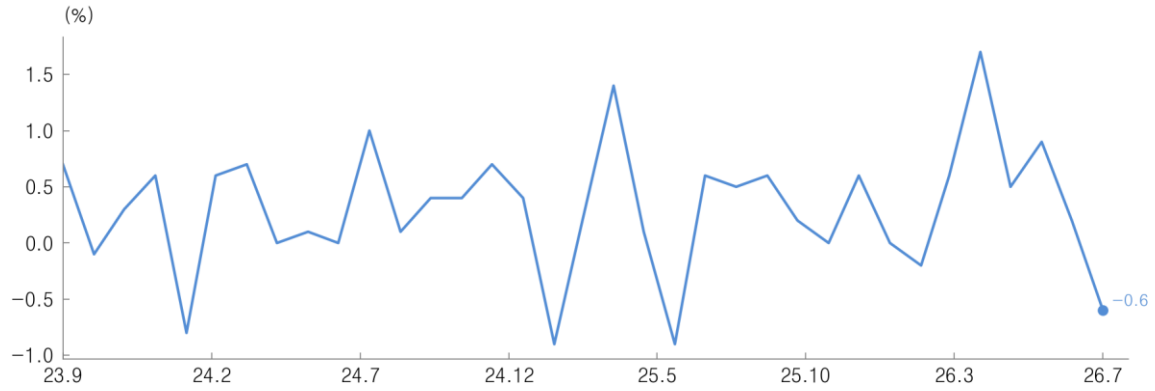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6 (이번)	8 월 미국 소매판매는 헤드라인 기준 전월 대비 1.2% 증가하며 총매출 규모가 7 월은 물론 6 월 수정치까지 넘어섰다. 자동차·가솔린을 제외해도 증가폭이 그대로 유지되는 광범위한 확장으로, 수요가 식지 않았다는 이번 확인은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물가 우려와 긴축 기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2026-08-14	7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처음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기저 수요는 사실상 보험권에 머물러 있어 소비 둔화를 확정 짓기보다는 감속 국면 진입을 확인하는 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6-07-16	6 월 MoM 0.2%로 직전월 수정 1.0% 대비 80bp 급락했으나 절대수준 YoY 6.7%는 견조하며, 추세 악화는 일회성 반동·계절성 혼재로 보이며 글로벌 수요 악화와 주거 자산효과 기저 악화가 누적 중인 신호.
2026-06-17	5 월 소매판매 MoM 0.9% 회복·YoY 6.9% 고성장으로 소비 모멘텀 재확인, 하우스 No-Landing 기조를 뒷받침하나 명목 성장이 크다는 점에서 인플레이 영향 상당 시사.

8 월 소매판매 — 업종별 성장률

항목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맥락
소매판매 총계(헤드라인)	+1.2%	+6.0%	총매출 7,739 억달러, 6 월 수준도 상회
자동차·가솔린 제외	+1.2%	+5.6%(전월 4.7%→가속)	특정 품목 착시 아닌 광범위한 확장
자동차 및 부품 딜러	+0.6%	+2.1%	전 업종 중 증가율 하위권, 7 월 감소분 미회복
가솔린 주유소(산출값)	+3.1%	+21.0%	전년비 급등은 유가효과, 전월 기여도는 미미
전자제품·가전 매장	+1.6%	+7.8%	전 업종 중 증가율 최고
건축자재·정원용품 매장	-0.2%(통계적 유의성 미달)	+5.1%	사실상 보험, 감소로 단정 어려움
식품·음료 매장	+0.4%	+0.5%	전 업종 중 최저 증가율(명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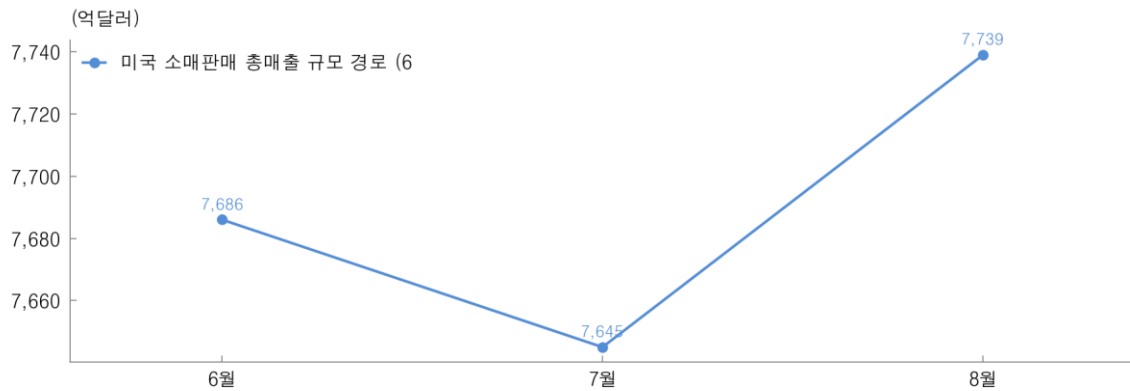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전월대비(%)	1.2
소매판매(\$B)	773.9

미국 소매판매(전월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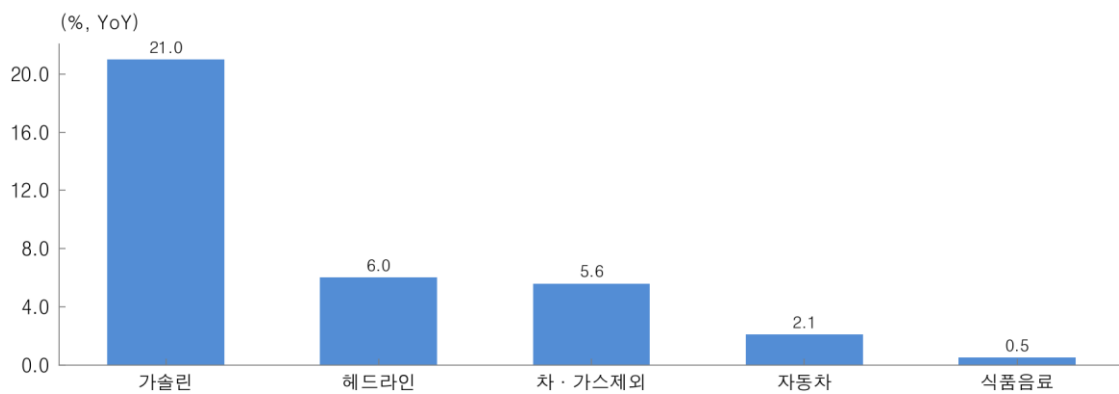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소매판매 총매출 규모 경로 (6 월 수정치~8 월,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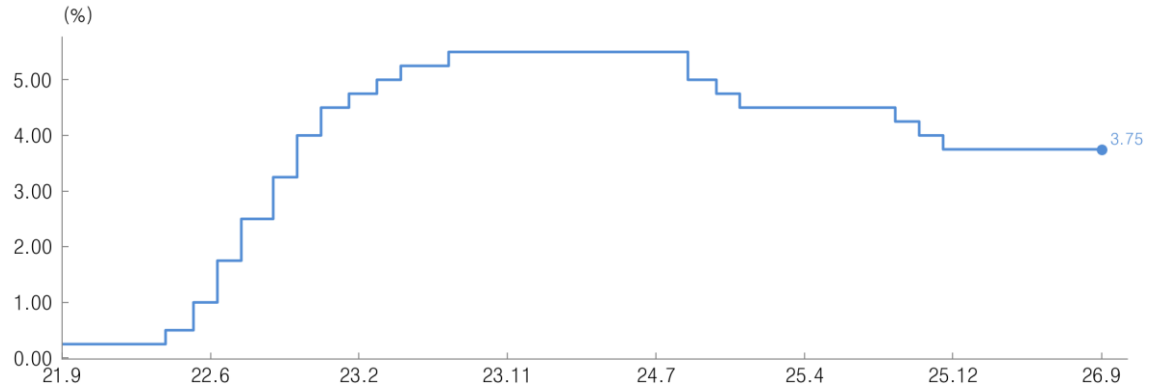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소매판매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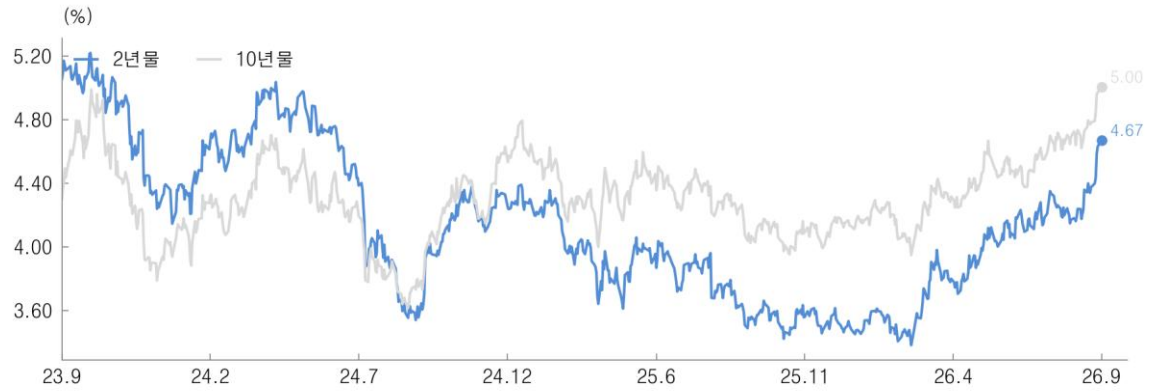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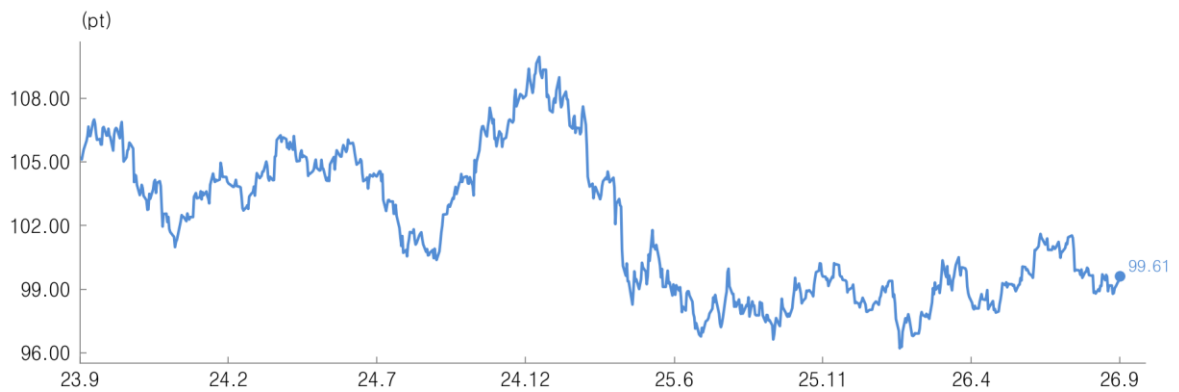
자료: CEIC(2026-09-15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